

# 堂神話의 MOTIF와 基本形式

## — 濟州島 堂 神話考(二) —

### 支 容 駿

#### 차 리

#### 序

- |                |             |
|----------------|-------------|
| 1. 海神系 堂 神話    | 5. 其他 本郷 神話 |
| 2. 松堂系 神話      | 6. 七日堂系 神話  |
| 3. 漢拏山 出生系 堂神話 | 7. 八日堂系 神話  |
| 4. 外來神系 堂 神話   | 8. 綜 合      |

#### 序

濟州島內 270餘個의 神堂들에 길고 짧은 갖가지 形態의 堂神본풀이가 붙어 있다. 그중 스토리가 짜여진 神話들은 50餘篇을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가 極히 類似한 것이 많음을 蒐集途上에 이내 느낄 수 있다. 卽 얼마 되지 않은 motif들이 若干씩 달리 結構되어 여러개의 堂神話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곧 發見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므로 이들 神話들을 分析 比較한다면 그 50餘個의 堂神話들이 몇개의 基本形式으로 줄여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곧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이것을 整理해 보려는 바 神話數가 많으니 便宜上 各堂의 性格別로 海神堂系, 本郷堂系, 七日堂系, 八日堂系 堂神話로 쪼개어 살펴 나가기로 한다. 本郷堂神話들은 또 松堂系, 漢拏山出生神系, 外來神系, 其他로 또 나눈다.

## 1. 海神系 堂 神話

여기 海神系堂이라 하는 것은 現在 “돈짓당” “개당” “海神堂” “영등당” 이라 불리우는 堂들과 이와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堂이라도 神話에 “漁夫, 漁船, 漁場, 海女” 등을 管掌 支配한다는 神堂들이 다.

“돈지”란 “물가의 언덕” 곧 “둔치” 이고, “개”란 “浦”란 말이니 “돈짓당, 개당”이란 “漁邊堂, 浦堂”이란 뜻이 된다. “영등당”이란 “영등神”을 모신 곳인데, “迎燈” 혹은 “燃燈”등 表記가 보이는 이 神은 그 성격이 여러가지다. 本土의 경우, 風神으로 생각되는 이 神은 (註1) 濟州에서는 主로 海神的, 風神的 兩面이 있으므로 여기 같이 넣어 두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堂神話들을 가장 單純한 것에서 부터 차례로 보아나가자.

이 海神系神話들의 大部分은 그 이야기가 길게 成長하지를 못했다. 大部分 「돈지한집」 「개당한집」 「돈지 할마님」 「개 할마님」식으로 神名만을 呼稱하거나, 이에 夫婦 關係를 想定해서 「돈지 하르바님, 돈지 할마님」 「개 하르바님, 개 할마님」이라 呼稱하고 다음 祝願으로 들어가는 것이 一般이다. 또는 이 「돈지」와 「개」가 事實上 區別이 안되므로 「돈지 하르바님, 돈지 할마님, 개 하르바님, 개 할마님」을 한데 묶고 여기에 「요왕체수 부원국」까지 합쳐 부르는 데 (舊左面細花 돈짓당)가 있으나 어느 것이나 모두 神名 呼稱 뿐이다. 이 神名에서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이 海邊 또는 海浦神이 「할마님」 곧 女性神으로 부름이 一般이라는 点이다. 「하르바님」이 붙은 곳이 있기는 해도 이것은 後代的인 夫婦想定임을 곧 생각할 수 있다. 이 女性神이 조금 具體化된 것이 바로 「龍王國 大婦人」 또는 「龍女婦人」이니 불리우는 堂神이겠는데 이런 堂神은 市內의 漁村인 龍潭洞의 <그스락당> 神外 여러개의 分布를 볼 수 있다. 이 그

스락당은 李朝 때 濟州에 甚한 旱魃로 九年凶年이 들었을 때 市內三徒里의 神房 高대장이 官에게 木숨을 걸어 놓고 祈雨祭를 하는데 長으로 五尺이 龍을 만들어 그 꼬리를 龍水(沼)에 드리우고 七日間의 굿을 끝냈고 官衙에 木숨을 내놓으러 가는데 삼시에 역수 같은 大雨가 쏟아졌다(註2) 는 仙 堂인데도 神의 본풀이는 겨우 神의 呼稱 뿐이다. 以上은 모두 神名의 呼稱만 있는 것인데 이보다 더 긴 것은 <문수물당 본>처럼 漁船 漁夫 海女 漁物 漁場등을 찾아 했다는 職能表示와 <상단골, 중단골, 하단골> 식의 단골 表示와 日規定이 붙는 것들이다. 이런 型인 것으로 좀 긴 것은 「西歸 돈짓당」에 것이 되겠다. 全文을 紹介하면

「불리는 동이와당 광덕왕, 서이와당 관신요왕, 남이와당 광신요왕, 북이와당 광인요왕, 어기역 지기역 해득지신, 수만 수천 사그레 대이왕, 일곱 칠요왕, 이목 삼선왕, 일만 꿈수애기, 삼천 불래기 용신 좃이흔신 돈지 할마님.

천수망 망수망 일게 흡서. 보롬에 띄겨 가지고 원 드실 가게 마라줍서. 본모을 본 지경데래 돌아오게 허여줍서. 피기 하영 물게 허여줍서.」

(西歸里 男巫 朴己出 口誦)

이 神話는 海洋管掌 女神인 「돈지 할마님」이 거느리고 있는 諸 龍王神과 管掌한 諸漁類를 饗한 것이다. 이것은 「돈지 할마님」에 「龍宮」觀念이 結付된 것이겠는데 여기에도 그 神에 對한 仔細한 이야기가 없다. 이런 海洋女神이 어떤 神임을 좀 자세히 說明해 놓은 神話로는 「金寧 성세짓당」과 「北村堂의 당팍하르방 당팍 할망 본풀이」가 있다.

金寧 성세짓堂本풀이를 보이면

「동이요왕 말장 아들이 薨명 三月 초여드렛 날 인간으로 나올 때, 운문대단섬서, 남비단 패지, 버므아즈 가로베기, 은집서, 파동개,

주먹그른 옥노, 편적그른 상무 번러, 궁전 그득 살을 벌러 혼  
 쌀 끝을 노민 서울 팔대 구웨연주문 올리고, 아자 철리물 보  
 고 사아 말리를 보고, 영급 조은 신당이 옥황의 명령 받아 밋  
 성세기 좌정례야 만민 레녀들 좃이호고 상선 중선 소선 나끼  
 어작선 좃이례야, 청명 삼월 초여드랫날은 년년 생진일 대제일  
 을 받고 매달 매월 초 흥를, 초여드래, 열 여드래 동삼삭 그을  
 석돌 하다락에서 상 받고, 춘삼삭 하삼삭은 하다락이서 상 받  
 아 만민 단골이 위 흡니다. 동양 삼국 간 조손, 서양 각국 간  
 조손, 장수 장맹과 만수무강 소원성취, 영급 조은 한집입니다.

(濟州市 健入洞 男巫 李建春)

이 神話는 이제까지 「돈지할마님」 「개할마님」 「요왕국대부인」 이  
 라 불리우던 海神이 東海龍王의 末男으로서 玉皇의 命에 따라 3  
 月 18日날 人間世界로 와서 모든 漁船類를 管掌하여 祀祭를 받는  
 神이라 되어 있다. 여기 龍王末男으로 된 것은 돈지할망 또는 龍  
 女婦人이라 하던 女神을 強壯케 하기 위하여 男神으로 바꾼 것일  
 것이다.

北村堂의 海神神話는 龍王皇帝國에 아들 딸이 많고 또 사위가 가  
 不良하므로 龍王이 北村神堂인 〈당쿠들노빚름한집〉에게 書信連絡을 하  
 여 사위 딸 夫婦를 보내니, 北村堂에 와 같이 坐定하고 그물, 漁  
 場을 차지하여 祀祭 받는 神이라고 한다. (註3) 위엿 것은 龍王  
 國末男이었는데 여기선 龍王國의 夫婦로 되었다. 역시 元來는 女神  
 인 것 같다.

以上을 綜合하고 보면 이 神話들中 神名의 呼稱이나 그 職能 단  
 골 祭日等의 羅列만으로 된 것은 이 神의 人格化가 뚜렷하지 못  
 한 때의 造型일 것이며 이것이 人格化되자 「東海龍王系의 女神이 人  
 間界에 외서 海上을 管掌했다」는 짧은 이야기가 기본이 된 것이  
 라 볼 수 있다.

다음 영등神話를 보기로하자.

大部分의 本郷堂에선 이 영등신에 對한 <영등손맞이>란 祭儀를 二月에 行하고 있는데, 「손맞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듯 이 神은 손(客)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祭儀를 올리는 理由를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正月 열 나흘날 올 금년 무스 태평을 시켜 줍서 해서 <과새열명>을 올려라. 그리고 강남천주국서 영등 대왕, 영등 우장, 영등 호장, 영등빨감, 영등좌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 제주 산귀경 물귀경을 올 것이다.

二月 열 나흘날 영등 大祭日로, 나를 쫓아 왔으니 이젠 벌도다. 손님 대우로 일만 줍수덜 그 어른안티 소정을 해서 고동, 생복, 우미, 정각, 천초, 매역찌나 많이 쥐뿔 잡서고 그 어른덜 위해서 배나 후나 묶고 굶을 치민 일만 줄쉬에게 먹을 만 썰만 준다. 제주도예 예주 벌이는 우리 북촌이 곱이고 남주 벌이는 반베끼 안된다…」(註4)

이것은 北村里 本郷神이 단골들을 向해서 말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영등神의 성격을 理解할 수 있다. 卽 이 神은 外國神(江南天子國)이요, 一年一度 찾아 오는 손님이며, 해변에 海草 貝類등 海女採取物을 주는 女神이라는 点이다. 왜냐하면 영등神의 呼稱을 <大王> <우장> <戶長> <別監> <座首> 등 官職을 붙여 놓았지만 이 官職名들은 「우장」에서 類推하여 부친 것이라 보여진다. 卽 우장이란 이 영등신이 온다는 2月 1日~14日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 雨裝 쓴 영등이 온다고 傳承되니 그 <우장>의 類推에서 神格을 偉大視하여 붙인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등할망, 영등하르방>이 그 原名이라 하겠는데 거기에다 할망이 먼저 불려졌고, 또 一般도 <영등 할망>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亦是 이것도 女神이라 볼 것이다. 이 영등神을 堂神으로 모신 곳이 翰林邑 水源里의 「영등당」

이다. 이 당의 神話는 여러가지로 전하여서 「本來 中國에서 장사 다니던 女人의 破船하여 그 屍體가 漂着하여 영등神이 되었다.」(註5)는 것과 「翰京面 板浦里 漁夫가 漂流하여 외눈배기섬(一目人이 사는 섬)에 갔더니 이 외눈배기들이 잡아 먹으려 하는데 이보다 먼저 漂着한 水源 사람이 그들을 救해 돌려 보내주니 이 사람들이 살아 돌아와 그를 堂神으로 모셨다」(註6)는 것이 있다. 그 水源인이 板浦人을 救해 보낼 때 말하기를 2月 1日에 濟州에 가고 同 15日에 돌아오겠는데 바닷가의 〈보말〉이 비었거든 내가 까 먹으며 간 줄 알고, 비가 오면 우장을 쓰고 간 것으로 알라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 영등神에 對한 仔細한 것은 別稿로 밀우어야 하겠거니와 여기서 그 神이 外來神이며 女神이요, 해변의 海女 採取物을 管掌한 神으로서 그 神話는 다른 海神系神話와 話根은 다르나 motif는 같은 點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면 海神系堂의 神話는 거의 같게 成長하지 못 했고, 스토리가 이루어진 것의 基本形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龍王女가 와서 海邊을 차지했다는 데 歸納된다.

## 2. 松堂系神話

松堂이란 神左面 一週道路가의 坪垆里에서 約 二十里 떨어진 곳, 漢擊山 기슭의 질편한 벌판에 자리잡은 山村이다. 本來 이 마을은 上 中 下의 세 村落으로 이루어져 있어, 〈웃송당〉, 〈셋송당〉, 〈알손당〉이라 불리웠다. 本來 이 各村落엔 各各 堂이 따로 있어 「웃손당」은 「금백주」라는 女神이, 「셋손당」은 「세명주」가, 「알손당」은 「소로소천국」이란 男神이 祀祭되었었다. 神話에 依하면 이 「알손당」의 「소로소천국」과 「웃손당」의 「백주또」는 夫婦神이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18, 딸이 28, 손자가 378(그 수는 巫觀에 따라 다르다)이어서, 그들이 島內 各 村里에 퍼져 本鄉神이 되었다고 한다. 허나 어느 巫觀도 이 系譜를 모두 대는 사람은 없고 또 발의

系譜는 全然 없다. 이 손당의 司祭者이었던 男巫 故 高奉仙氏의 口誦에는 八男까지의 系譜가 있고(註7) 濟州市 三徒洞 男巫 金午生氏가 吟誦하는 〈도릿당 본풀이〉 등에서는 12男까지의 系譜가 되어있다. 이것은 그만큼 이 堂이 過去 勢力이 強했던 것을 意味하며 그 神話도 內容이 類似가 많음을 알려준다.

이 堂神系の 神話는 그 內容으로 봐서 大略 세가지로 于先 나눌 수 있다. 첫째는 父母神인 〈소천국〉과 〈백주또〉의 生活에 重點을 둔 것파, 둘째는 이 兩神의 아들들의 生活에 重點을 둔 것, 셋째는 이에 同系라고 神話되기는 하나 그 系譜나 契機가 全然 다른 것들이다. 이제 그 神話들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첫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곧 原地인 〈松堂 本鄉本풀이〉인데 먼저 그 줄거리를 간단히 적으면

「서울 南山에서 솟아난 〈임정국마님〉인 〈백주할망〉이 松堂의 〈소로소천국〉을 찾아와 부부가 되어 산다.

아들 七兄弟를 낳고 여덟째는 腹中에 있는데, 먹어 살기가 어려워 〈백주할망〉의 권유로 농사를 짓게 된다. 하루는 넓은 밭을 혼자 가는데 〈삼진산〉이라는 중이 지나다가 집짐을 조금 달라 했다. 조금만 먹으라고 했더니 중은 소천국이 먹을 국 아홉동이 밭 아홉동이를 모조리 먹고 도망쳐 버렸다. 소천국은 배가 고파 밭 건던 자기 소를 잡아 먹었으나 그래도 안되어 남의 소까지 잡아 먹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그만 부부살림이 분산 된다. 그는 〈오백장군〉의 따님을 쫓으므로 삼고 띤 살림을 차려 나가고 백주는 임신한 아기를 낳아 길렀다.

이 아들이 일곱살이 되자, 아버지 소천국을 찾아 갔다. 아들은 어리광을 부린다고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무릎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했더니 아버지는 이들을 不孝하다 하여 부쇠 石匣에 담아 東海에 띄워 버렸다. 石匣은 東海龍王國의 珊瑚樹 가지에 걸렸

다. 마침 東海龍王國의 三女에게 發見되어 入宮하고 그녀와 婚姻하고 산다. 허나 食性이 엄청나서 <고기도 장군> <합도 장군> 먹어대어 가니 龍王은 사위와 딸을 같이 石匣에 넣고 쫓았다. 그들은 江南 天子國에 닿았는데, 때마침 일어나는 兵亂을 平定하여 大功을 세웠다. 그는 天子가 주는 厚謝도 굳이 사양하고 濟州로 歸鄉했다. 일곱살 때 죽어라고 띄워 버린 아들이 살아 돌아옴을 본 父母는 겁이 나 도망가다 죽는다. 어머니 「백주」는 <웃손당 손당머리 큰 갱나무 밑>으로, 아버지는 <알손당 고무나무 밑>으로, 큰 형님은 <거머 문곡성>, 둘째 형은 <大靜 廣靜堂>, 셋째 兄은 <旌義 시선당>, 넷째는 <제주 성안내윗당>, 다섯째는 <괴내깃도(金寧堂神)>, 여섯째는 <절머리(巨老) 명동국>, 일곱째는 <다리(橋來) 산신도>, 여덟째는 <栗山 本堂>으로 들어가 각각 本鄉神이 되었다.」

이것이 該堂 司祭 故 高奉仙氏의 口誦神話의 梗概다. 이 神話의 構成은 추려보면 다음과 같겠다.

- ① 서울 南山出生인 <백주할망> 과 <소천국> 이 부부가 되어 많은 아들을 낳고 산다.
- ② 巨人인 夫神이 妻神의 권유로 농사를 짓다가 소를 잡아 먹은 것이 밧미가 되어 離婚하여 夫神이 나간다.
- ③ 아들을 不孝하다 하여 流配시키니 龍王國에 가 龍王 三女와 婚姻한다.
- ④ 食性 때문에 龍王國에서 쫓겨나서 江南天子國에 이르러 武功을 세우고 歸鄉한다.
- ⑤ 죽으라고 띄워버린 아들이 살아오매 부모들이 각각 도망가 죽어 本鄉神이 된다.

이것은 부모神의 化神由來를 說明하기 위한 神話이나, 이야기의 半以上이 여덟째 이들의 「龍女와의 婚姻歸鄉」에 치우쳐 있다. 그 만큼 그 婚姻이 이 神話에 있어서 重點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아들들의 生活史에 重点을 둔 神話들을 보자. 먼저 늘어  
야 할 것은 朝天面 北村의 本郷話다. 一般的으로 이 堂神은 松  
堂神系の 系譜에 넣지 않는다. 허나 北村堂의 司祭 男巫 朴仁珠氏  
는 「본산국은 가릿당서 솟아난 영주 노산주 화로 화로 금백 새맹  
주 아홉 찾 주제노라…」고 그 神話를 시작한다. 解釋하면 「근본 남  
은 곳은 가릿당(堂名)에서 솟아난(湧出) 瀛州 漢拏山の <윗松堂 금백  
주> <셋松堂 새맹주>의 이혼쟁 子弟노라」란 말이다. 이 神話는 매  
우 기나 줄거리는 별로 없다. 內容은 松堂에서 北村을 設村 保護  
하려고 나리웠으나, 村民이 崇仰하지를 않으므로 凶害를 주어 村民  
으로 부터 祀祭를 받게 되는 過程의 解說이다. 그런데 그 形式이  
神과 人間들의 對話形式으로 展開되었으므로 長形이 된 것이다. 이  
神話는 백주도의 子神의 來歷에 重点을 둔 것이기는 하나 父神과  
의 갈등이나 子神의 婚嫁關係나 松堂에서 나리오는 過程의 事件의 叙  
述이 허나도 없다. 아마 同系の 神話에서 가장 단순한 것인상 싶다.

이 子神의 婚嫁이나 堂神으로서의 座定 由來를 상세히 解說된 神  
話로는 <소천국내깃당 본풀이>와 市內 <내깃당 본풀이>를 들어야 한  
다.

金寧 內내깃당은 舊左面 金寧里에 있어 每年 卅日 솟머리를 희  
생하여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供犧하는 勢力이 센 堂이다. 이 堂神  
話는 健入里 男巫 李達春翁 口語에 依하면(註8) 위의 松堂 神話와  
거의 같으나, 거기에 父神 出生地, 母神과의 혼인상황, 그리고 父母  
간 죽은 後 金寧堂神으로 座定, 祀祭 과정등이 상세히 說明되어 있  
다. 좀 자세히 말하면 「가운뎃도 <소천국> <알라당 고부나무를> 솟아  
나시고 <장남천주국> <백물래윗> 되서 솟아나신 <백주도 마누라> 인  
간 탄생해서 시는 듯 하니 <백주>가 瀛州入島해야 손당될 솟아가서 소  
천국을 상련해야 천상래편이 되었읍니다.」

이렇게 父神 小천국은 下松堂里 <고부나무를>에서 湧出했다 하고

母神 백주도는 江南天子國 백모래밭에서 湧出했는데 그녀가 天機를 봐서 소천국을 찾아와 婚姻해 산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아들의 出生으로 넘어간다. 夫婦는 아들은 五男을 낳고 六男째는 腹中에 있을 때, 위의 松堂 본풀이에서와 같이 소름 잡아 먹은 事件으로 離婚하게 되고 소천국은 바람 밀으로 내려사 <해남곳 굴왓>(地名)에 가서 <경동 갈척 딸>을 小妾으로 삼아 수렴을 하여 살다가 아들을 流配한다. 그 以後의 이야기는 즉 같이 오다가 父母가 죽는 데부터 이야기는 더 붙는다. 卽 江南天子國에서 武功을 세우고 돌아와 放砲一聲을 하며 들어가니 父母가 무서워 도망가다 죽었으며 아들은 돌아간 父神이 生時 사냥질을 하며 좋아하던 강늑, 노루, 사슴, 돼지 고기를 많이 잡아다가 致祭하고 漢孛山에서 金寧까지 地形을 보고 내려와 堂神으로 좌정하여 豚祭를 받았다는 由來 解說이 더 붙었다. 내릿堂의 神話도 내용이 이것과 極似하다.

以上 同系神話を 종합하고 보면 그 아들의 系譜는 다르나 이야기는 全然 同一한 것이 환하다. 다만 다른 것은 母神 백주도의 出生地가 <서울南山>과 <江南天子國>이 다른 것 뿐이다. 이는 後代的 事大觀念이 <서울南山>과 <江南天子國>을 붙여 놓는 것으로 볼 것이요, 濟州 松堂 出生의 소천국과 外來 女神의 婚姻한다는 點은 同一하다 하겠다. 또한 그 婚姻의 方式으로 보면 아들의 그것도 濟州 出生의 身神과 龍國 三女라는 外來神의 婚姻이 비슷하다. 뿐 아니라 그 神의 性格이 비슷한 點이 있으니, 소천국은 국 아홉동이 밥 아홉동을 먹는 壯士요 巨人이며 本來부터 수렴을 해서 肉食을 하는 神으로 妻神의 권유로 農事를 시작하다가 다시 수렴으로 復職하는 神이었는데 이들神 또한 武器를 잘 쓰는 武將이며 <국도 장군, 밭도 장군, 고기도 장군> 먹는 巨人 壯士며 肉食을 하는 神이다. 한편 그 女神들을 보면 <백주도>는 外來 女神으로 農事 짓기를 男便에게 권유하고 소잡아 먹은 男便을 내뿜을뎨치 肉食을 禁忌하는 女神이고, 龍女인 子婦도 外來 女神이요 肉食을 過多히 하

는 男便을 쫓아내는 系列이다.

허고 보면 이 父母神話와 子神神話는 비슷한 것으로 따로 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父神神話와 子神神話는 別個의 神話였는데 兩者가 統合 系譜化하여 整序되고 하나의 神話로 結構된 것이라는 것이다.

어떻든 이 神話들은 종합하고 보면 「① 濟州의 肉食生活하여 肉食하는 壯士 武神이 外來 農業穀食하는 女神과 結合한다. ② 父神과 同一性格의 子神을 不孝罪로 流配하니 龍王國宋女와 婚姻하여 歸鄉한다.」라는 重點的인 特徵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있어버릴 만한 것은 소천국의 妾關係다. 高奉仙氏 口誦엔 소천국이 백주토와 離婚하자 <五百將軍 ㅁ님아기>를 妾으로 삼았다 했고 李達春氏 口誦엔 「정동갈채 ㅁ」을 小妾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妾關係가 同系 他堂 神話들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림을 볼 수 있다. 父神의 妾뿐이 아니고 子神의 妾關係도 여러가지로 解說된다. 男巫 金午生의 口誦 <세밋당(濟州市 園泉堂)본풀이>에는 글도 환도 잘 쓰는 소천국의 열두째 아들인 이 堂神은 不孝의 罪를 짓고 父母 절을 떠나와 堂神이 되었는데 妻는 「서당국」에서 훗아난 「백주아기 남선 발 일뢰 중저」로서 모든 피부병을 고쳐 준다고 하였다. <서당>이란 表善面 兎山에 있는 <일렛당>을 말하며 <일례중저>란 神名은 <七日堂의 婦人>이란 뜻이다. 허니 이 堂의 妻神은 <七日堂神>이겠는데 그것은 純純한 七日婦人이 아니라 「백주아기」가 冠形된 七日婦人이다. 「백주아기」란 바로 松堂神 소천국의 妻 <백주토>의 幼稱임을 생각할 때 이 堂의 妻神은 「백주토」와 「일렛도」가 同一神化된 것임을 알게 된다. 結局 母神인 <백주>를 妻로 神話되는 이 사실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父神神話와 子神神話가 別個의 것이었는데 整序化했다는 말을 證明해 주는 것이 되기, 도한다.

이번에는 소천국의 아들이 <兎山 여드래당>神과 婚姻關係를 맺는 것

이 나타남을 보자. 朝天面 橋來堂神話가 그것이다. 이 堂神은 소천국의 열 하나째 아들로써 父母에게서 쫓겨나 이 堂神이 되었는데 妻神은 「옥당부인」이고 妾神은 「서당각」서 솟아난 <고씨부인>이라고 한다. (註9) 이 <옥당부인>이란 여드렛堂의 <羅州 금성산>에서 온 <금부인 옥부인>으로 <兎山여드렛당> 神이다. 이렇게 父神이 妾을 맺음에 對하여 子神들도 또한 妾을 맺었다. 그러면 이 子神들은<일렛도> 或은 <여드렛도>와 어떻게 妻妾관계를 맺게 되는가. 이 解說은 七日堂 神話에 이어져가므로 거기 가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 는 잠간 中斷하여 漢拏山 出生系의 堂神話로 옮기기로 한다.

### 3. 漢拏山 (出生系) 堂神話

「저산국 부루뫼도 할로영산 백관또」 이것은 南元 女巫 慎今年이 말한 南元 本鄉 본풀이의 첫 줄이다. 어떤 神일까?

「할로 영산 지질계 백록담 무위유자 솟아나니 일곱살에 동몽선집 초력초권 통관전집 다 목그니…」 이 건 舊左面 細花里 本鄉堂의 천주또 본풀이의 첫 줄이다. 「천주또 神은 漢拏山 <지질계>의 白鹿潭에서 無爲而化하여 湧出하여 七歲에 童蒙先習 史略初卷 通鑑全集… 등 다 읽으니…」 하는 말로 그 出生이 뚜렷하다. 「하로 영산 백관님, 강남천주국 도원님, 칠오름 도병서, 할로영산 西南목계 백록담서 솟아난 부름은님」 이것은 西歸邑 下孝里 男巫 姜太玉의 口誦 <禮村甫木本鄉本>의 첫머리인데 여기서 볼 때 「백관또」나 「백관님」이 같은 것이요 「부루뫼도」나 「부름은님」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 허고보면 위의 南元本鄉本은 「저산(에서 솟아난) 바람또도, 漢拏靈山(서 솟아난) 百官또」의 뜻으로써 漢拏山 出生임을 알게 된다.

「십들 천신님, 들아 삼신선, 누려 삼백관, 올라 궁예청 선예청 정남청, 이내국도 재우명 읍이국 세벤떡이 가자. 선 다섯 계군문 회어나고 회어들고 천신님」 이것은 舊左面 漢東里 男巫 許丁花氏가

口誦한 城山面 심돌(始興)本鄉본풀이의 一部다. 이것만 놓고는 자 세하지 않으나, 上倉 하르방당의 「할로 영주 삼신산 상상고교리 셋 어께 乙丑 三月 일사흘날 유시 아홉 성제 솟아나니 큰성님은 정 이 수산 올레 무루하로산…」

(解) 「漢拏 瀘州 三神山 上峯 西肩에서 乙丑 三月 13日 九兄 弟 湧出하니 큰 형님은 旌義 水山 <올레 무루하루산>」

여기의 <三神山>을 보면 위의 <삼신선>은 山神과 神龕이 複合되어 된 이름으로 <山神>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漢拏山 湧出神들이 <~하로 하로산>이란 이름이 붙는 것을 보면 爲美堂神인 <동마막 서마막 진지역 하로 하로산>도 역시 漢拏山 出生堂神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推理하여 統計하여 본 바 本鄉堂으로서 漢拏山 出生이 確實한 것이 堂數 28에 神數 45이며, 松堂系는 확실한 것이 堂數 17에 神數 21이고, 다음에 論述한 外來 神系는 堂數 17에 神數 26이었다. 이것만 보아도 漢拏山 出生神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그 神話의 內容을 보기로 한다. 呪文型인 것을 除外하면 나머지로써 가장 단순한 것은 저 中文面 穡達里 本鄉本풀이가 된다(註10) 그 神은 漢拏山 셋어께 <소뭇된 밭에서 솟아난 九兄弟中的 第6兄男으로 父母를 離別하고 出生地에서 中文面 穡達里까지 내려와 神으로 坐定했다. 이것이 그 神話의 要約이다. 내려오는 過程은 徑路의 地名 羅列 밖에 없는 단순한 神話이다.

이 神과 兄弟間인 上倉하르방堂神인 <남판돌판고나무상타사하로산> 神話에는 이 行脚에 활쏘기 내기를 해서 主從 關係를 결정하는 motif와 뱀 몸으로 變하여 三砲手의 눈에 띄게 하여 司祭를 정하는 motif가 끼었고 婦人은 光州 徐氏 婦人이라는 점이 더 붙었다(註11)

西歸邑 好近里 本鄉神의 <아비국하로산또>는 <하로영산 설명옥망>에서 乙丑 三月 13日 子時에 솟아나고 그 坐定地인 「돌혹기」까지의 行脚에서 줄지어 가는 사슴을 잡아먹고 오다가 고공산에서 「삼진

서 삼백관」의 許可를 받고 坐定했다고 神話는 되어 있다.(註12)

또한 <沙溪 큰물당>神話를 보면 漢拏山 西肩에서 솟아난 이 神은 강늑 노루 사슴등을 몰아 山房山까지 이르고 이 山을 오르내리며 잡아 먹고는 沙溪에 이르러는 발을 만들어 갈아먹고 坐定하고 있다.(註13)

이상 몇개의 神話를 보아온 바 이 神들은 漢拏山峯에서 出生하여 各 村里로 내려와 坐定했는데 行脚에는 주로 강늑 사슴 노루등을 잡는 수렵생활을 했다는 점이 共通하며 村落에 내려오고선 沙溪堂 神처럼 農業을 개척하는 것이 가끔 있다. 이 點은 바로 松堂神이 狩獵해 먹던 壯士였는데 農事를 하기 시작 하였다는 點과 類似하다.

다음은 漢拏山 出生神의 婚姻關係를 解說한 神話를 보자. 위에 들었던 上倉堂神처럼 그 婦人이 外來神인 光州 徐氏 婦人이라고 이름만 밝힌 것이 있는가 하면 松堂神話와 極似한 것이 있다.

中文 本鄉堂神話를 보면 父神은 위의 漢拏山 西肩 <소곳된발>에서 솟아난 九兄弟中의 第五男인 <中文이하로하로산>이고 母神은 「진궁하늘 진궁부인」인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東海龍王國의 末女인 「요왕아기」와 婚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야기는 松堂 본풀이에서와 같이 父母에게 不孝하여 石函에 담겨 流配 當하여 東海龍王國에 漂着하고 셋째 딸과 결혼한다. 그도 역시 食性이 지나쳐 丈人인 龍王에게 妻와 함께 쫓기는 것은 같은데 龍王國을 떠날 때 <청졸리 흑졸리 청충치 흑충치>등의 呪術주머니를 丈人에게서 얻고 온다는 것이 다르다. 呪具를 얻은 夫婦는 直接 濟州에 入島한다. 父母는 七歲 때 죽으라고 피어버린 子息이 살아올 리 없다고 認定해 주질 않으므로 그들은 그 청졸리 흑졸리(粉)를 뿌려서 父母의 눈을 삽사에 못뜨게 했다가 다시 이를 거두어 눈을 환히 한다. 이에 父母는 子息임을 認定하고 들여 놓아 아들을 <드람지괴(堂名)>에, 며누리를 <불복당>에 각각 坐定시킨다.(註14) 그런데 이 「요왕아기」는 神話에서 正式으로 呼稱할 때 「요왕애기 요왕군쫄 선왕애기

선왕군졸, 여선당선 불목당, 하당국선 일뢰중조」라고 부른다. 이것은 龍王 아기와 船王軍卒의 좌정했는데, 여선堂에서는 <불목당>이오 下堂에서는 <일뢰중조(七日아가씨)>라는 뜻으로 龍王國에서 시집 온 女神을 七日堂神이라 하는 것이다. 다음에 解明할 七日堂神과 이 龍王女가 접촉하여 同一神化한 것이다.

다시 <甫木本郷本풀이>를 더 소개하자. 甫木本郷堂神은 漢攀山 백옥담에서 솟아난 「브롬웃님」이며 그 婦人은 「신중부인」이다. <브롬웃님>이 그 婦人을 다리고 山에서 내려오다가 보니 <칠오름>에 청기와집이 보이므로 심상치 않다하고 妻를 吐坪里 許氏宅 寡婦집에 맡겨두고 거길 가 보았다. 거기엔 <하로영산 백과또>와 <강남 천주국 도원님> <칠오름 도병서> 三位가 바둑을 두고 있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바둑 競技로써 兄弟를 가르는데 <브롬웃님>이 졌다. 그래서 三位는 위를 찾이하어 爲美神으로 가고 <브롬웃님>은 甫木神으로 가게 되었다. 헌데 맡겨둔 妻를 찾아가 보니 妻의 몸에서 종경내(豚肉냄새)가 나므로 그 理由를 물었더니 便所에 갔다가 돼지 고기가 먹고파져 명주를 손에 잡고 돼지 밀구경으로 잔회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다.(註15) 그는 더럽다고 妻를 막골동산(堂所在地)에 坐定시켜 狩獵人의 祀祭를 받아 먹게 하고 자신은 새금상 따님을 小妾삼아 座定했다.(註16)

이 神話는 園基競争으로 兄弟를 가린 다음 妻神의 돼지 內臟을 먹어 不淨하므로 離婚한다는 motif가 끼었다. 헌데 이 돼지 내장을 먹은 이 妻神 <신중또>는 바로 七日堂神이다.

또 하나 城山面 水山本郷本을 본다. 이 神은 <水山 순퇴부루하로산>으로 漢攀山 出生이다. 먼저의 穉達里 神이나 中文面 神들이 伯兄으로 神話되는데, 이 神도 아버지에게 不孝하여 漢攀山에서 쫓겨나고 차차 내려오다가 松堂에 이르러 <금백주(웃손당 女神)>를 婦人으로 삼고 水山엘 와 사는데 이 婦人이 하루는 들엘 나갔다가 하도 물이 먹고 싶어졌다. 그는 돼지 발자욱에 고인 물을 발견하고 이

를 먹다 그만 털 하나가 코에 들어가 콧구멍을 질렀다. 이것을 안  
夫神 <올리 무루하로산> 은 不淨하다고 하여 大靜邑 馬羅島로 귀양을  
보내고는 自身은 龍王國에 들어가 龍王國末女와 婚姻을 하고 돌아온다.  
쫓은 큰 婦人의 流配를 알고 그만한 일에 귀양보내면 되느냐하  
고 馬羅島에 가서 시앗의 귀양을 풀리러 가 보니 그녀는 아들 일  
곱 형제를 낳고 살고 있었으므로 아이들을 업고 와서 같이 좌정했  
다. (註17)

이것이 이 神話의 개략이다. 여기서 큰 婦人의 저 松堂神인 금  
백주(곧 백주할망)이라 하고 이 神이 돼지 발자국의 물을 먹어 七  
雙子를 한꺼번에 낳았다 했고, 龍王國末女는 妾으로 되어 있다.

이 돼지 발톱의 물이나 돼지털을 먹어 七雙子를 낳는 motif는 다음 말  
할 七日堂神話의 主 motif다. 하므로 이 中文神 甬木神 水山神話 셋  
은 各各 松堂神話, 七日堂神話등과 接觸 變化 융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中文堂의 龍王國末女 婚姻얘기는 바로 松堂神의 子神의 婚  
姻神話を 그대로 융합시킨 것이고, 甬木神話의 돼지 內臟을 먹어  
不淨해져서 離婚하는 얘기는 七日堂 神話を 變形 융합한 것이며, 水  
山神話에 妻를 <금백주>로 神話하거나 龍王國 末女를 妾으로 맞아든  
것은 松堂神話와의 接觸 借用이고, 돼지 발자국의 물을 먹다 돼지 털  
로해서 七雙子를 낳는 얘기는 七日堂神話의 융합이다. 이 借用된 神  
話들을 때버리면 漢拏山 出生神의 이야기는 「父母에게 不孝하여 집  
을 떠나 수렵을 하여 먹으며 村落에 내려와 堂神이 되었다」는 基  
本形만 남게 된다.

#### 4. 外來系堂神話

松堂의 女神 <백주또>가 서울 南山에서 出生하여 入島하였다는 것  
을 보았거니와, 이와같이 本鄉神을 外來神으로 그려 있는 데도 적지 않다.

저 城山面 三達里 本鄉神은 <서울 黃정승>의 末男인 <황서국서어매장



군>인데 그의 父親 황정승이 重患으로 늙게 되자 나라에선 黃正승이 살아나면 역적 노릇을 할까 봐 白丁들을 다 가두어 버리므로 宋男인 “어메장군”이 白丁대신 참실로 쇠 모가지틀 걸려매고 고향을 치니 소가 놀라 죽었다. 그는 손수 피를 뽑아 아버지께 올렸는데 이것이 나라의 指目を 받게되어 역적으로 몰리게 되므로 濟州로 避亂와서 三達里 本鄉神이 되었다. (註18)

威德 本鄉神인 <급서 황하늘>은 서울 덕자곶(고을)에서 솟아나 入島한 神이며 金寧 큰당의 <관세전부인>과 溫平의 <맹호부인>, 朝天의 정중부인은 서울 정기땅에서 솟아난 姊妹間인데 女子이면서도 이들은 역적으로 몰릴까 봐 제주에 들어와 本鄉神이 되었다. (註19)

이렇게 서울 出生의 武將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 濟州로 入島함이 많은데 가끔 漢拏山을 求景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

新山里 女巫 金永善은 同里와 溫平里 堂神 <맹호부인>이 漢拏山 구경하러 왔다가 堂神이 되었다고 하며 中文面 道順堂에 <제석친왕>과 같이 坐定해 있는 <중계 남중이선생>도 陸地 <미영한동>(寺名이라함)에서 솟아나 濟州 漢拏山 求景을 왔다가 堂神이 되었다 한다. (註20)

이들은 入道하며는 한라산을 中心으로 一帶의 風物을 구경하며, 地形의 형을 보아 내려오다가 坐定地를 發見하고 堂神이 되는데 가끔 그 사이에 事件을 이끄는 수도 있다.

舊左面 杏源<남당>의 江南서 들어와 <文氏고양할망>과 同坐한 <중이대서>는 아버지는 <江原道>, 어머니는 <鐵山>으로 중이 되었는데, 濟州山의 靈氣神靈을 구경하러 왔다가 朝天面 北村의 <김철지영감> 同甲잔치에 갔더니 돼지 국물에 소면을 말아 주므로 이것을 먹었더니 肉食하는 중이라고 잘못으므로 도강 와 <남당>의 神이 되었는데 祭當는 돼지를 잡아서 前脚하나 肝하나 순대하나를 올린다. (註21)

이 이야기는 위에서 보았던 甬木神이 돼지 內臟을 먹은 것, 水山 堂神이 돼지 발자욱의 물을 먹다가 돼지닐이 코를 찔렀다는 motif와 비슷한것이다  
이상 例의 神話엔 婚姻 이야기가 없는데 이 外來神들의 婚姻關

係를 解說한 이야기를 보려면 먼저 시내 칠머리堂 神話を 드는 게 좋다.

이 堂神은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江南天子國 가달국>에서 솟아난 <도원수감찰지방관>이며 妻는 <요왕해신부인>이다. 夫神은 天下 名將으로서 國家에 亂이 일어났을 때 南北敵을 捷破하고 龍王國에 들어가 末女와 結婚하고 한라산 구경차 入島하였다가 <칠머리>堂神이 되었다. (註22)

이 이야기는 저 松堂의 백주또의 아들의 <龍女婚>, <江南天子國亂 平定> 이야기가 先後만 바뀐 것이다.

다음 들고 싶은 것은 細花의 <백주또>와 금상님 神話다. 市內 내 甯당 神話에서는 <백주또>의 아들이 <天子또>라 되어 있는데 舊左面 細花本鄉堂 神話에서는 한라산 出生의 文武를 겸한 偉大한 老男神이 <天子또>이며 그 外女孫이 <백주또>이고 그녀의 男便이 금상님으로 되어 있다.

그 神話を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南山의 <임정국>따님인 <백주또>는 일곱살이 되자 父母눈에 거슬러 집을 떠나 三寸벌되는 龍王皇帝國에 守廳婦人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청글리 흑중치> 등의 呪術 주머니를 얻고 父母에게 돌아가 謝罪했으나 아니 받아주므로, 제주 한라산에 사는 외할아버지를 찾아와 細花里에 천주또와 같이 坐定했다. (註23)

이 神話を 보고 이내 聯想되는 것이 松堂系의 女神이다. 松堂의 <백주또>와 서울 남산 出生이란 點이 같으며, 여기서는 婚姻의 motif는 없으나, 松堂의 아들들이 龍王國 末女와 婚姻하고 「呪具를 얻고 왔다는 點」이 같다. 同系 同一 motif의 神話다.

그러면 이 백주또는 어떻게 婚姻하는가?

<아양동축은하장땅>(或은 서울 남산 아양동출)에서 솟아난 <금상님>은 「밭도장군 술도장군 안주장군 제육안주 전머리」로 먹는 天下名將이었다. 마침 일어나는 國亂에 都元帥를 맡아 목아지 열 둘 달린 敵將軍까지 배어넘겨 亂을 平定해 놓았는데, 王은 그 謝恩은 커녕 이 將帥를 그냥 두었다가는 역적이 될까 봐 죽이려 하므로

〈금상님〉은 患을 피할겸 濟州에 사는 백주또와 配匹이 되고자 하여 入島하게 된다. 〈천주또〉께 가서 辭緣을 아뢰었더니 食性を 물어보고는 고기를 먹으니 더럽다고 하여 婚姻을 거절한다. 할 수 없이 그대로 나오려는데 문에 기대어 엮들던 〈백주또〉가 술 고기를 참겠다 아뢰라 하니 그리 맹세를 울리고 婚姻한다. 허나 술 고기를 참아가니 皮骨이 相接해감으로 할 수 없이 〈백주또〉의 配에 따라 婚家에 凶害를 주어 고기와 술을 잔뜩 먹고는 沐浴한 後堂에 들어가 同座하곤 한다. (註24)

이 神話의 主要 motif는 그 食性和 婚姻이다. 穀食하는 女人과 肉食하는 武將과의 혼인인데, 거기에 破綻이 있다. 이것은 위에서 본 바 있는 肉食하는 〈소천국〉과 穀食하는 〈백주또〉와의 婚姻에서 일어나는 破綻과 같은 motif다. 同一系 神話라 할 것이다.

舊左面 月汀 本郷본풀이를 보면 이 堂의 男神은 수렴을 하는 〈신산국〉이며 女神은 〈황토그을 황정심〉의 딸인 〈서당 할망〉이다. 이 女神은 〈동개남은중결〉에 祈子하여 태어난 딸인데 七歲 때 政丞判書 살려가는 아버지의 가맞대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뱀으로 還生한다. 父母가 뱀몸이 된 것을 알고 不吉하다 해서 石函에 담아 東海에 流配해 버리니 濟州의 朝天面 北村에 漂着, 다시 人身으로 化하고는 問占해 보니 〈신산국〉이 配匹감이라하므로 그를 찾아가 結婚하고 〈주부또, 태부또〉 두 아들을 낳았다. 하로는 목이 말라 돼지 발자욱의 물을 빨아 먹다가 돼지털이 코를 찌르니 이를 불태워 먹은 것이 고기 먹은 듯 하였는데 七雙子를 잉태했다. 夫神은 이것이 불결하다 해서 別坐 시켰다.

이 神話는 위에서 보아온 몇개의 이야기가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곧 느끼게 된다. 卽 ① 祈子하여 生女하는 motif, ② 石函에 담아 流配하는 motif, ③ 蛇身이 人身化하는 motif ④, 돼지털을 먹어 七雙子를 낳는 motif가 그것이다.

①은 一般神 神話나 古代小說에 흔한 것이고 ②는 松堂神話셋 것

그대로이며 ③, ④는 다음 설명할 兎山 일렛당과 여드렛당 神話의 motif이다.

以上 外來 本鄉神話들에서 松堂神話의, 七日堂, 八日堂神話의 要素를 除外하고 보면 그것들은 서울이나 江南天子國 등에서 솟아났고 나라에 역적으로 몰릴까 봐 入島하여 堂神이 된다는 것이 一般的임을 추려낼 수 있다.

저 西歸 本鄉堂 神話처럼 이문 동생을 보고 장가를 들어보니 추한 언니가 新婦임에 그만 失望하고 동생을 매리고 濟州로 도망와 堂神이 된다는 純粹 戀愛的 motif로 끝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은 一般的인 타일이 아니다.

## 5. 其他本鄉神話

本鄉神話로서 以上の 類型에 넣을 수 없는 것들이 얼마간 있다. 主要한 것은 그 神들이 天上系인 것과 英雄의 神格化로 된 것들이다.

天上系의 神들로서는 <옥황상제 말갓딸아기>(玉皇上帝末女)가 一般的이며 그녀들은 父母에게 不孝한다거나 宮女 侍女에게 물밖을 잘 주지 않아 굶겨 죽인 죄로 이 세상에 流配되어 온다. 市內 <각시당>이나 朝天面 臥山 <불도당>神話가 이것이다.

다음 영웅신들로는 城山 本鄉의 金通精, 涯月 上加堂의 邊察訪, 安德 和順神인 <고성목>등의 男性과 舊左面 東福神인 <굴목밭할망>처럼 女性들이 있는데, 모두 實際의 人物인 듯 하다.

金通精은 고려의 三別抄의 頭目으로 濟州에 와 古城에 土城을 쌓아 抗拒하던 사람이며, 邊察訪은 上加 出身으로 윗트와 勇氣로 이를 높은 사람이며, 고성목은 未詳이나 神話에는 和順의 一富者였는데 濟州牧使가 담뱃씨로 三尺補士 五尺넓이의 길을 만들라는 식의 壓力을 가해가니 山房山으로 가 숨어버린 者라고 되어 있다. (註25)

<굴목밭할망>은 東福甲를 設村한 女人으로 아이들 낳이 낳을 때

늑을 드러주며 살았는데 죽어갈 때 「나는 一生을 男女區別을 몰라서 죽어가니 神堂으로 위하라 그러면 福을 주겠다」 하였으므로 堂神으로 위한다 한다. 處女神이요 巫女死靈이다.

## 6. 七日堂系神話

松堂 神話를 건둥 들은 이들은 그 백주포의 여덟째 아들이 兎山神이 되었다는 系譜가 이상하다고 한다.

兎山堂이란 蛇神系 堂인데 松堂神의 아들이라는 것이 理解가 안 간다는 것이다.

허나 兎山에는 堂이 두개 있다. 하나는 아랫쪽에 있어 <알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여드랫당> 이요, 다른 하나는 윗쪽에 있어 <웃당>이라고도 불리우는 <일렛당>이다. <여드랫당>은 그 神話가 다음 말 할 蛇神 이야기지마는 일렛당神은 松堂神과 關連지워 神話되는 神이다. 위의 여덟째 아들은 이 <일렛당>神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위의 松堂系 本郷神話나 漢拏山 出生系 神話 등에서 이 神들이 <일또렛>와 婚姻을 맺는 것이 있음을 말했었다. 이제 일렛당 神話는 어떤 이야기인가를 보고 그 婚姻관계도 아울러 確認하기로 하자.

<일렛당>이란 말은 그 祭日이 每七日(7, 17, 27日)인데서 命名된 것으로 그 神名도 이 命名法으로 해서 <일렛도> <일레할망> 이라한다. 또한 이 堂의 所在地를 <서당팻(밭)> 이라하고 堂名을 <서당>이라고도 하며, 神名을 <서당할망> <서당일레>라 부르기도한다. <서>란 말은 <서먹다>란 「서」에서 나온 것 같다. 「서먹다」란 말은 「꼭식이 아직 익기 전에 건우어다 먹는 것」을 말하며 또 아이들이 잘 빠져 죽는 沼를 「서먹는 물」이라고 쓰임으로 보아 <서>란 「幼」의 意며 <서당>이란 「어린 아이를 위한 堂」이라고 해석할만한 것으로 神의 職能에서의 命名인 듯하다. 허나 제대로의 神名은 「신중포」 「신중부인」이며, 그 神話名도

神名을 붙여 부를 때는 <신중또본풀이>라 한다. (註25)

일렛당의 分布는 거의 全島的이고 그 數는 90餘個나 된다. 이 많은 堂들의 본풀이들은 대개 三系列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兎山 일렛堂 神話와 同類의 것들이며, ②는 西歸邑 好近里堂神話系列이며, ③은 安德面 下貌神系の 것이다.

첫째 <兎山일렛당>系神은 濟州島의 東半部에 널리 퍼져 있는 神으로 그 神話는 形式의 差異는 약간 있어도 내용은 거의 같다. 그 神話를 요약하면

- 1, 윗손당의 백금주와 알손당의 소로소천국 사이의 아들이 不孝하므로 石函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리니 東海龍王國에 들어가 末女와 婚姻하고 松堂으로 돌아온다.
- 2, 父母가 別居하라 하므로 夫婦는 松堂을 떠나 나려 오는데, 妻가 목이 말라 돼지 발자욱의 물을 먹다가 돼지털이 코를 찌르므로 이를 불에 태워 냄새 맡으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 하였는데 男便은 이를 不淨하다 하여 馬羅島로 귀양 보낸다.
- 3, 男便은 <새금상>의 아홉째 딸을 妾으로 삼았는데 이 妾이 「그만한 일에 귀양보내느냐」고 큰 부인을 매리러 가보니 아들七兄弟를 낳아 있으므로 시앗과 자식을 귀양 풀어온다.
- 4, 妻妾은 일렛당神이 되고 父子들은 各里 本鄉神이 되었다. (註27)  
이 神話는 松堂神의 子婦가 돼지털을 먹어 七雙子를 낳고 七日堂神이 되었으며, 父子들은 本鄉神이 되었다는 것으로 松堂神의 子孫이 本鄉神이 되었다는 말이 된다. 女神이 돼지털을 불태워 냄새 맡은 게 고기 먹은 듯 했다는 것은 最少限의 肉食이며 그래서 아들 일곱을 낳았다는 얘기다.

이 神話의 構成은 松堂神話의 「龍女와의 婚姻 歸鄉이야기」에다 「돼지털 냄새 맡아 七雙子 낳은 이야기」와 「妾이 귀양풀어 온 이야기」가 더 붙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神話는 妻神系으로 보면 七日堂 神話거나 夫神系으로 보면 松堂系 神話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松堂系 神話에도 이와 極似한 神話를 보게 된다.

저 城山面 新豊本郷본풀이를 보면 이 堂神 <개로옥서또>는 소천국의 셋째 아들로써 龍王國에 들어가 末女와 婚姻하고 돌아오는데 그 婚姻方式이나 龍女가 豚毛를 먹는 것이나 兩神話에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松堂神話와 약간 다른 점은 <개로 옥서또>가 龍王國에 갔을 때 松堂神話에서처럼 <고기도 장군 밥도 장군> 먹은 것이 아니라 「주소지에 독두점, 제알안주, 노기당상매, 떡으로 치민 백돌래나 백시리」 등을 마구 먹어가니 東倉 西倉이 다 비어갔다는 話根과 歸鄉하였을 때 父母가 子息으로 認定하여 주지 않으므로 부술로 콩 불리던 어머니의 눈에 콩점질을 들게하여 고생시키고 다시 청풍채(靑扁)를 실설 부쳐 절로 실설 떼어지게 하여 歸家를 詐諾받았다는 話根이 붙은 것이 다르다.

한편 七日 神話와 다른 점은 豚毛를 먹었으니 부정하다해서 시내 芳川(河川)으로 따로 坐定시켰다는 것이 七日堂 神話의 「馬羅島 귀양」 「七双子 出生애기」와 다르다. (註28)

이 神話는 松堂神話와 七日堂 神話와의 中間的 存在라 본다.

이의 같은 形式엿 것에 <表善本郷> 및 <表善面 細花本郷본풀이> 등이 있다. 表善面 細花里 男巫 愼明玉氏 口話에 따르면 表善本郷神 <부르뭇도>는 <소로소천국>의 末男이고 이 <表善부르뭇도>의 맏아들이 表善面 下川本郷神, 둘째가 表善面 細花本郷神, 셋째가 兎山七日堂神이라 한다.

그의 <表善本郷>이나 下川, 細花本郷 神話에는 龍王國 末女의 婚姻 이야기는 없으며 妻는 <서당꽃 일레할망>이라 하고 돼지 털을 먹어서 不淨하니 各各 따로 냇가에 좌정시켜 몸 목욕이나 하고 빨래나 해달라고 했다 한다. 또 이 女神의 職能은 어린 아이의 「만경 급경 경풍 경세(以上驚定) 눈애피(眼疾) 이질 배야피(腹病) 당비리 물비리 너먹지 흥허물(皮膚病)을 이랫날 床을 올리면 씌어준다」고 했다. 兎山 七日神話와 거의 같은 이야기다.

그의 口誦 <兎山일렛당본풀이>는 이 下川이나 細花 本郷본풀이에 「龍王女 婚嫁이야기」와 「妾의 馬羅島 귀양」이야기만이 더 긴 것이다. 허나 赤松教授수집 <신중도본풀이>와 그 요소가 같다.

허나 構成은 兩者가 서로 다르게 되었다. 이제 그 내용 구성을 잠깐 보기로 하자. 同神은 <表善부루못도>의 셋째 아들이고 妻는 <서당왓일레할망>인데, 夫神이 流配되어 龍王國에 들어가 龍女를 妾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子息임을 認定받고져 콩불리는 母親의 눈에 콩 찹질을 들게하고 또 걸어내고 하니 그 父母가 무엇으로 이 공을 갚으면 좋겠느냐고 하여 작은 머누리인 龍女에게 「땅한락」을 주었더니 큰 머누리인 「신중도」가 시앗에게 얼마나 땅을 주었나 시기심이 나서 땅을 돌아 보다가 그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다가 돼지털을 먹고 일곱 아들을 낳았으며 그 女神의 職能은 역시 幼兒의 諸病 眼疾 피부병 치료라 했다.

이처럼 여기선 正妻는 <서당할망>이고 龍女는 妾으로 되어 있으며 고창학氏 口誦 <웃당본>은 赤松教授 수집과 同히 龍女가 正妻로 돼지털을 먹어 七雙子를 낳는 것으로 되어 있다. (註 29)

이러한 妻妾의 差異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松堂系 神話와 七日堂 神話가 本來 別個의 神話로서 兩者가 後代에 와서 융합된 結果 때문일 것이다. 즉 龍女와 혼인하고 귀향하는 대목까지의 松堂系神話와 그 以降의 七日堂 神話의 結合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야기가 갈리는 것은 어느 神話를 爲主했느냐에 달린 것으로 松堂系神話에 爲主한 것은 正妻인 龍女가 豚毛를 먹어 七子 낳고 七日神이 됐다고 됐고, 七日 神話를 爲主한 것은 正妻인 龍女는 妾으로 되게 마련인 것이다. 그래서 新豊里와 表善里는 不過 2, 3km의 近距離인데도 이런 構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神話에서 松堂系 神話의 挿話들을 빼 버린다면 本來的인 <일렛당神話>의 基本 主要素는 「女神이 돼지 고기類를 먹어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堂神이 되어 어린이의 病과 眼疾 피부질환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 된다.

다음은 好近神系 七日堂神話를 보기로 하자.

兎山七日神은 治病 育兒神임이 그 本性이었는데 이것이 西歸浦를 지나가면 그 職能이 달라져 간다.

위에서 든 바이지만 西歸邑 甫木里 堂神 <부루못도>의 妻는 돼지 內臟을 먹어서 別居하는 이야기로 兎山七日神話와 極似한 것이었는데, 그 職能이 狩獵人의 守護, 婚姻의 守護, 幼兒의 保護로 되어 治病의 職能이 떨어졌다. 그러니 새로운 七日堂神話가 생겨나게 마련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西歸邑 好近리에 이르니 새로운 七日堂神話가 생겼다.

그 神話의 內容을 말하면 그 堂神 <에비국하로산또>의 末女가 한 살 적에 어머니 곁쪽지를 뜯은 죄, 두살적에 아버지 수업을 뺏은 죄, 이런 식의 죄를 지으므로 대바구니에 담아서 서천 밭에 던져 버렸다. 마침 大靜縣 刑房이 말을 잃고 찾으러 다니다가 이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말은 城안 城內 밖의 텅자나무에 묵아지 달려매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凡人이 아님을 알고 말짱부니에 집어놓아가면서 河源, 中文, 柑山, 倉川등 지나가는 마을마다 七日堂神을 마련하며 城內에 이르자 刑房은 키잡다고 「물팡돌」에 앉어두고 가 버렸다. 아이는 七日間이나 앉아 있어도 누가 위하는 줄 없으므로 獄에 들어가 <옥할망>이 되었다」(註30)는 이야기다.

이 神話가 말하 듯 追放當한 不孝자인 不孝女가 七日堂神이며, 同系의 七日堂神은 西歸에서 大靜까지 傳承되며 山間을 거쳐 幹林邑 今岳까지 이른다.

다음은 中文面 貌里系 七日常神이다. 貌里堂神은 이미 穉達里本 鄉神話에서 본 바와 같이 漢拏山 셋어깨 소뭇된 밭에서 솟아난 九兄弟中 第七男인데 이 神과 그 婦人 <천지천산 어뭇국족달이대서부

인) 과의 사이에 딸 七兄弟가 태어났는데, 그 系譜는

長女… 난드르(中文 大坪) 주문도천일례중조

二女… 열리(中文 下貌) 망밭일례중조

三女… 거문질(安德 沙溪) 청밭할망일례중조

四女… 번내왓(安德 和順) 원당밭일례중조

五女… 통천이(安德 柑山) 고도세미일례중조

六女… 창천리(安德 倉川) 당밭할망일례중조

七女… 열리(中文 下貌) 진신당일례중조

와 같다.(註31)

이 딸들의 이야기는 一般的으로 父母에게 不孝罪를 지어 곁을 떠나고 한리산으로 부터 坐定地까지의 行脚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婚姻과 食性を 解說하는 挿話가 있다. 그 挿話들은 이미 나왔던 것과 大同小異한 것들의 借用挿入이므로 略한다.

以上 말해온 七日神話들은 한데 놓고 보면 結局 兎山 七日堂神이 本質的인 것이요, 그것의 傳播가 好近系와 貌里系 七日堂神인데 本源的인 神話가 忘却되자 새로이 近處本郷神話의 motif로써 改作해 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 7. 八日堂系 申話

<여드렛당>이란 表善面 兎山里 <여드렛당>과 이의 擴布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一般的으로 「兎山堂」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이 堂은 貞祠를 노시는 堂이라 해서 널리 알려져 學者間에도 齋totem 崇拜라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堂神은 그 壇끝(信仰者)의 딸에서, 딸로 꼭 따라오며 이 神은 崇拜하다 中斷하면 집인이 亡한다고 널리 이야기 된다. 그래서 一般은 그들 집안엔 장가 들기불까려하고, 그러니 만치 그 壇끝이나 그들의 딸들은 그 神崇拜을 秘傳히 한다. 이상한 일은 結婚하기 위해서 新婦가 崇拜을 中止하면

그 神은 그 女人에게 凶害를 주지 않고 그의 男使에게 凶災 疾病을 주어 困境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알게되면 할 수 없이 다시 집안에서 비밀히 이를 모시게 되고, 그 단골들이 많아져 공공연히 될 때는 共同祭場인 堂이 이루어 진다.

그래서 公開된 <여드랫당당>은 그리 많지가 않아 筆者의 수집에 22個所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神話는 어디서나 兎山에서의 이야기와 大同小異한데 安德面 柑山里에 이르면 「柑山 호그니 유드랫당 본풀이」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타난다. 이제 兎山 여드랫당 본풀이부터 紹介하자.

이 神은 本來 羅州 靈山 錦城山 神으로 一年一回 處女를 祭物로 맡았었다. 이 고을에 牧使가 부임하면 해마다 罷職되어 使牧할 사람이 없어 하는데, 李牧使가 自願하여 부임 하였다. 途中 <지동토인>이 이 山엔 靈氣있는 土地官이 있으니 下馬하라 한다. 그대로 가면 말 발굽이 진다는 것이다. 牧使가 그 神을 보기 위하여 巫女를 불러 굿을 하니 선대자 머리를 드리운 處女가 나타났다. 人間이 무슨 神靈이 있겠느냐 하고 제라한 神靈을 뱉어라 하니, 이번엔 한 아구린 하늘에, 한 아구린 땅에 붉은 대구렁이가 움직움직 나타났다. 牧使는 如意珠를 물지 않았으니 神이 아니라고하여 砲手를 불러 뱀을 쏘아 죽이고 불살랐다. 뱀은 바둑들로 변하여 靑鶴처럼 날아 서울 종로 거리에 가 있었다. 이때 제주에서는 姜氏 刑房 韓氏 吏房 吳氏 刑房 三人이 서울에 進上갔다다가 이 金바둑 玉바둑을 發見하고 귀한 것이라고 주었다.

進上이 수월히 잘되고 報答도 많이 받았다. 그들은 歸鄉하려 배를 타고는 쓸 데 없는 것이라고 바둑들을 던져 버렸더니 大風이 불어 航海를 할 수 없었다. 問占後 <船王>을 하니 順風이 일어 航海가 좋았다. 오다 보니 어느샌지 바둑들이 뱃장 밑에 와 있었다. 배가 濟州 城山面 濶平계 닿았다. 바둑들은 女人으로 還生하여 同里 本鄉神인 <맹호부인>에게 人事를 드렸더니, 모든 마을이 다 찾아한 神이 있고 兎山

밖에 비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하므로 同堂의 使神 <文氏令監>의 길  
 引導로 兎山을 찾아가다. <팔상망 중허티>에 이르러 보니 新豐里堂  
 神 <개로옥서또>가 활쓰기 하고 있었으므로 男子를 피하려고 도망을  
 했다. <전쟁이>로 <숫>으로 ... <반맹이물>에 까지 와 기진맥진하  
 여 앉았더니 뒤쫓아온 <개로옥서또>가 팔목을 잡으므로 더럽다고  
 칼로 자기 팔목을 쥐어 버렸다. 용왕국에 이 사실을 보고 했더니  
 그 양반 말씀을 들어야 호호태평으로 지낼 수 있다고 하므로 <개  
 로옥서>에게 謝過하고 婦人이 되어 <일兎山>으로 내려와 坐定했다.  
 하로는 강씨 오씨 <느른독정하님>을 대리고 <삼만오리소> (沼)에 발  
 래하러 갔더니 破船되어 漂着한 왜놈이 이 美人을 發見하고 쫓아오므  
 로 도망가다가 <목은각단밭>에 가 숨었는데 뛰는 사이에 치마가 다  
 벗어져 밀이 들어나게 된것을 숨기려다가 발각되어 輪奸당하고 모  
 두 죽었다. <한님>은 <兎山신산무루>에 묻었는데, 얼마후 加時里 <강  
 당당집 외똥아기>가 六月방아를 찧다가 하품을 하며 狂症을 이르  
 겠다. 問占을 하니 兎山堂 <강씨아기> 혼정 탓이라고 하므로 큰 굵  
 을 해가니 病者가 「내 위한 굵이면 께문을 열어 물명지를 풀어보라」  
 고 한다. 그것을 풀쳐 보니 뱀 새끼들이 뱃뱃 말라 죽어 있었다.  
 그 명주로 神다리(神이 下降하는 길)를 하여 굵을 해가니 그 따님이 파  
 른파륄 살아났다. 그 범으로 이 神을 위하고 이 神의 凶害에는 명  
 주로 다리를 하여 굵한다. (註32) 진성기氏가 집수한 알당본 (註33)  
 에는 倭船 破船 原因이 <개로옥서또>의 큰 妻 <요왕부인>이 시  
 앓을 시기해서 이르킨 造化라고 되어 있고, 神의 恫恤으로 狂症을  
 이르킨 處女가 누이 바깥을 하여 婚姻한 韓氏吏房과 姜氏刑房의 누  
 이라 되어있으나 三者의 이야기가 大同小異하다.

이 神話를 요약하고 보면

- ① 處女 供犧까지 받는 蛇神이 蛇身→바둑돌→人身등으로 自由變形  
 한다.
- ② 女神이 도망가다가 男女에 붙잡히자 팔목을 쥐는다.

③ 미움 없는 耆의 겁탈을 받아 죽는다.

④ 急病 大風 등 凶災를 주어 祀祭를 받는다. 등 主要 motif를 추려 낼 수 있다.

이런 motif는 本郷堂에도 흘러 들었다. 城山 始興本郷堂엔 <송감서>란 神이 있는데 그 神話는 <송감서>가 서울에 양태 進上 갔다가 물벽감을 사왔는데 마침 國喪이 남으로 북에 담아 명숙에 물어 두었다가 그가 죽자 그것으로 수의를 하려고 고내 보았더니 뱀이 우글우글 나왔다. 이것을 본 그의 딸이 잠피 놀라더니 앓아 누어 죽게 되므로 딸의 요구(神의 요구임)에 따라 굿을 하니 나왔다 고 되어 있으며(註33) 月汀堂의 <서당할망>은 <황정승> 딸이 뱀으로 還生하여 入島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이들은 모두 兎山 八日堂神話와 同一 motif인데 이 神은 七日堂神으로 되었다.

다음 <柑山里 好近구드랫堂> 본풀이를 보면 이 본풀이는 「예리된발 제산곡하로산, 허사복이상마을 러좌수하마을 황토나라 황토부인」이라 시작된다. <...제산곡하로산>까지는 父神이요 <황토나라 황토부인>은 母神이며 中間部分은 侍神이라 한다. 이 堂 앞에 「李氏할망 여드랫한집」이란 八日神이 같이 祀祭되고 있는데 이 八日神은 朝天 李淵長의 딸로 팔자가 사나워서 원천강(古臺)을 보러 다니다가 旌義縣에서 이 柑山 出身인 吳座首와 눈이 맞아 쫓기 되어 살다가 吳座首가 解職되어 歸郷할 때는 뒤를 따라와 그의 앞집에 살았는데 쫓기 병들어 죽자, 吳座首 아들은 兩班의 집안에 쫓기 있을 수 없다 하고 이 堂 앞에 묻으면서 같이 얻어 먹어라 학대하므로 吳氏 집안에 凶毒을 주어 祟仰 받는다는 것이다(註34)

이 堂은 여드랫堂이라 하지만 일렛당의 變形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好近里堂에서 西쪽으로 갈려서 간 것은 일렛堂인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자 <여드랫당>으로 바뀌어져 定着된 것이다. 그 神名을 보아도 男神은 好近神과 爲美神名이며 女神은 西歸本郷의 「황토부인」

이나 그만큼 好近系七日神話의 傳播가 柑山에는 不完全하게 되어 地方的 要素로서 再構成해 놓은 것이라 할 것이다.

이 外로 翰京 翰林 中心에 分布되어 있는 丑日堂 戌日堂 등이 있으나 이것들은 그 祭日에서 命名된 것으로 얘기가 說話화된 것이 몇 개 없으며 說話化되었어도 그 이야기는 이미 말해 온 것과 同一 motif 들이므로 여기서 그 考察을 줄인다.

## 8. 綜 合

以上 張皇하게 말해 온 海神系, 本郷神系, 七日堂神系, 八日堂神系 神話들을 一段 여기서 綜合하여 보면

- 1, 四系堂의 神話들이 그 成長에 있어서 相互間에 接觸發達하고 있었으며,
- 2, 그것들은 여러개의 motif가 結合組織된 것이므로 모두 堂神話들을 分析해 놓으면 結局 數個의 motif의 조금씩 다른 結合組織關係이었다.

이제 그 motif들의 主要한 것을 골라 놓으면 다음과 같겠다.  
(이 motif는 出生 坐定 祭日 단골解說등의 motif만 제외한 것이다.)

- A, 狩獵 肉食生活을 한다.
- B, (農耕 권유 받고) 肉食 때문에 離婚한다.
- C, 罪아닌 罪로(石函類에 담겨) 流配(또는 追放)된다.
- D, 龍女拉攏로 龍王國에 간다.
- E, 龍王末女와 婚姻한다.
- F, 食性過多로 追放 當한다.
- G, 龍王國 呪具를 얻어 歸家한다.
- H, (外國의) 亂을 (後援) 平定하고 功을 세운다.
- I, 呪具를 써 父母의 눈을 어둡게 했다 뜨게한다.

- J, 妻가 豚肉類(털 內臟)를 먹어 流配 又は 別居常하고 또는 七雙子를 낳는다.
- K, 妾이 귀양 풀어 온다.
- I, 人身, 바둑 又は 蛇身으로 自由變貌한다.
- M, 妻同生과 戀愛하여 같이 도망온다.
- N, 활쏘기, 뿔개, 바둑등으로 主從, 兄弟關係 地域管掌을 결정한다.
- O, 女神이 도망가다 男神에 팔목을 붙잡히자 죽아 버린다. (그後 結婚한다)
- P, 마음 없는 者의 接탈을 받아 죽는다.
- Q, 外來色布에 蛇神이 憑依하여 와 凶害 준다.
- R, 女人의 怨魂이 神格化한다.
- 이 18個의 motif 의 結合관계를 主要 神話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 표...motif 結合順序가 바뀐 것  
 ( ) 표...motif가 變化 또는 類似한 것

No.	神話	motif																神의 出生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	稷達 및 三達本郷本			○																漢 山 外 來
2	각시당본			○																天 上
3	柑山 일렛堂本※	○		○																漢 山
4	沙溪 큰물당본	○	○	○																漢 山
5	세 및 堂, 귀 명 도 堂 本	○	○	○																松 堂
6	細花堂금상님本※	○		○																外 來
7	金寧성세깃堂本								○											龍 王 國
8	細花백죽도本※	○	○	○					○											外 來
9	好近 일렛堂本			○					○											漢 山

No.	motif 神話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神 出 生 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10	칠머리당 본			○		○			○											外來
11	松堂 본	○	○	○		○	○		○											松堂
12	네댓당 본	○	○	○		○	○	○	○											松堂
13	中文本郷本			○		○	○	○		○										漢拏山
14	하원당 본				○				○	○										漢拏山
15	水山本郷本※			○		○	○				○	○								漢拏山
16	兎山일렛堂本			○		○	○	○		○	○	○								松堂
17	新豊本郷本			○		○	○	○		○	○									松堂
18	表善本郷本			○	○						○									松堂
19	終達本郷本	○		○							○									漢拏山
20	月汀本郷本※			○							○	○								外來
21	甬木本郷本※			○							○				○					漢拏山
22	上倉本郷本			○								○			○					漢拏山
23	西歸本郷本												○	○						外來
24	兎山여드렛堂本											○			○	○	○			外來
25	始興本郷本																	○		外來
26	柑山여드렛堂本																		○	濟州
27	沙溪코스락堂本																		○	濟州
	計	7	5	20	3	7	6	6	4	4	7	3	2	1	3	1	1	2	2	

이 表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motif는 CAEJFGE順으로 그 頻도가 높고 MOPRL順으로 그것이 적다. 이 數字가 絕對적인 것은 아니지만 濟州島의 堂神話構成要素의 一般을 理解하는 데의 밑바탕의 數字는 된다. 따라서 頻도가 一, 二회에 밖에 아니 나타난 것은 一



個地域에 限定된 別個神話로 볼 수 있으니 No.26,27이 그런 것이며 No. 23 西歸本郷堂이 또한 特殊한 것이다. 이를 除外하면 motif의 密集은 大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卽 No. 1~14까지가 motif A~I까지의 集團으로 꼽을 수 있고 No 15~19까지를 motif C~K까지의 集團으로 볼 수 있으며 No.20~25까지를 motif LNOPQ 中心의 集團으로 볼 수 있다. No. 1~14神話는 비록 그 出生과 堂系가 다르다해도 神話로는 松堂系의 系列이 되며, No.15~19神話는 七日堂神話에, No.20~25는 八日堂系神話에 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그 많은 堂神話들이 一般的인 것은 기껏해야 세계의 基本形式밖에 안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기에 特殊한 것들 西歸 本郷 本, 沙溪 又스락당본, 「加時 당나미文氏아기본풀이」 등을 합치드라도 이야기 數는 도저히 열손가락을 꼽힐 수 없을 것이라 確信한다. 蒐集에 나선 筆者에게 흥미와 용기와 놀라움을 준 것이 바로 이 類似였다.

여기서 우리는 神話人의 創作力과 그 方法이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傳統的 材料를 協調시켜 調和를 만드는 建設的 作業이 第一流의 詩的 創作이다.」(註35)고 한 moulton의 말이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神話의 地理的 分布문제다. 이 만큼 神話들의 類似가 地理的으로 어떤 區劃이 없을까 圖示하여 보기로 한다.

石函에 담겨 流配된 아들이 龍女와 婚姻하여 歸家한다는 松堂系神話を S로, 그 類似形을 S'로, 맞아온 婦神이 豚肉類를 먹어 別居당하는 예기인 七日堂神話を C로, 그 類似形은 C', 八日堂神話を P로, 그 유사형을 P'로하고, 好近系七日神話を CH, 下貌神系 七日神話を CA로 表示한다.

松堂系 神話는 松堂을 中心하여 西쪽으로 가면 市 내윗당을 건너 市西部로 나아가면 없어지고, 東쪽으로 城山面 水山에 이르면 그 堂神이 松堂의 백주또와 婚姻했고 豚毛를 먹어 귀양갔다고 하여 松

### 濟州島堂神話分布區劃圖



堂과 七日 兩神話의 中間的形態가 나타난다. 그래서 舊左面 終達里와 城山面 水山里를 경계로하여 兎山 神話의 構成이 이루어져 密集되다가 南元面 爲美里를 지나 西歸邑 甫木리에 이르면 돼지털이 돼지 內臟으로 바뀌지고 그 職能이 兎山系와 달라져 가며 西歸邑 好近리에 이르면 새로이 <호근이 일렛堂 神話>가 이루어져 西쪽으로 뻗어나가 大靜골까지 이른다. 또 그 사이에 安德面一帶에서는 「七日堂神」을 下貌堂神의 딸이라는 새로운 神話가 分布한다. 大靜에서 翰京을 거쳐 濟州까지에는 丑日 戌日堂 및 其他 堂의 分布가 보인다. 그래서 圖示와 같이 그 分布區劃을 끊어 놓았는 바 이는 堂神話의 分布圖임과 同時에 信仰區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1963. 7. -

註 1. 宋錫夏 風神考 韓國民俗考 PP. 91~100

2. 市 龍潭湖 男巫 安仕仁 口誦

3. 北村星 男巫 村仁珠 口誦梗概
4. 同氏 口誦 “北村本窟本풀이”의 祭日 解説대목
5. 耽羅誌 P. 274
3. 市 健入洞 女巫 李氏談
7. 張篤根 濟州島巫歌 국어국문학 18號
8. 국어국문학 23號 PP. 135~140收錄
9. 濟州市 三徒洞 男巫 金午生 口誦. 국어국문학 22號 PP. 146~147  
張篤根 濟州島巫歌(二)
10. 국어국문학 26號 PP. 127~123收錄
11. 국어국문학 22號 PP. 149~150 張篤根 濟州島巫歌(二)收錄
12. 西滯邑 好近里 男巫 金明允 口誦梗概
13. 安德面 沙溪里 男巫 오기영 口誦梗概
14. 中文面 中文里 男巫 姜철년 口誦梗概
15. 濟州의 便所엔 폐지를 기르니까 便을 보면서 폐지를 건드릴 수 있다.
16. 西滯邑 下孝里 男巫 姜太玉 口誦梗概
17. 城山面 水山里 女巫 趙씨 口誦梗概
18. 城山面 三達里 女巫 金永善 口誦梗概
19. 朝天面 咸憲里 男巫 高尹善, 城山面 温平里 韓基信 口誦에서
20. 中文面 道順里 男巫 趙戊生 口誦에서
21. 旧左面 漢東里 男巫 許丁花 口誦에서
22. 市 健入洞 男巫 李達春 巫書에서
23. 국어국문학 23號 PP. 133~135 收錄
24. 旧左面 細花里 男巫 高大申 口誦梗概
25. 安德面 和順里 男巫 許斗平 口誦에서
26. 赤松智城 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卷에도 神僧都本풀이라 收錄되어 있다.
27. 上記 신증도본풀이의 梗概
28. 城山面 新豊里 女巫 金桃花 口誦에서
23. 진영기 원 제수리 무가집 2. PP. 72~74

30. 西帰邑 好近里 男巫 金明允 口誦梗概
31. 中文面 中文里 강철년 口誦에서
32. 表善面 細花里 신명玉 口誦梗概
33. 진성기 제주도 무기집 2. PP. 20~34
34. 安徳面 倉川里 男巫 高昌鶴 口誦에서
- 35 本多露彰訳 文学の 近代的 研究 P.148